

# 노동, 자연의 풍경 속 삶을 다시 바라보다

새로 나온 책

## 오형록 작가 시집 '마중돌' 출간



눈앞의 고단함을 견디는 일은 결국 삶을 앞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된다. 농부의 일상을 시인의 언어로 오롯이 담아낸 시집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해남에서 해남문화회장과 시아문학회장으로 활동해온 오형록 시인이 시집 '마중돌' (문학들)을 펴냈다.

이번 시집은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내려 흙과 땀의 시간을 살아온 시인의 삶을 바탕으로, 고단한 노동과 자연의 순환 속에서 걸어올린 사유를 담아낸다.

시집의 제목인 '마중돌'은 작두샘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처음 붓는 '마중물'에서 비롯됐다. 마중물은 한 번의 수고로 종일 샘물을 길어 올리게 하는 물이다.

시인은 이 개념을 변주해 위험한 눈길을 건너기 위해 화물차 짐칸에 돌을 싣던 경험을 권두시 '마중돌'에 담았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 오이 접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서며 돌을 싣는 행위는 하루의 위험을 감수하고 삶을 다시 시작하는 준비의 몸짓으로 읽힌다. 시 속의 '마중돌'은 앞길을 미리 열어두는 존재이자, 고단한 삶을 지탱하는 작은 장치다.

이번 시집은 농사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시인은 서울에서 표구 기술자로 일하다 결혼 후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귀농했다. 1990년 2월,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의 삶은 기대와 시행착오가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작품 '양고라토끼', '존재에 대하여' 등에서는 농산물 가격 폭락과 생계의 위기를 겪는 농부의 좌절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러나 그의 시는 실패의 뉘저리에 머물지 않는다. 포

고단한 농부의 일상

시인 언어로 담아내

자연·인간 내면으로까지

시적 사유 확장

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다시 밭으로 돌아가고, 자연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삶을 이어가는 태도가 시 전반을 관통한다.

특히 '농사의 맛'에서는 인공수분 12일째를 맞은 참외가 눈에 띄게 자라는 장면이 담담하게 그려진다. 온몸이 파스 투성이가 된 아내와 마주 보고 웃고, 새와 꿩의 소리가 들리는 풍경은 노동의 피로 속에서도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인은 이 과정을 '고진감래'라는 말 대신, 몸으로 체득한 일상의 감각으로 풀어낸다.

후반부로 갈수록 시인은 자연과 인간의 내면에 천착한다. '눈'에서는 '고요한 호수'와 '눈먼 바람'을 대비시키며 인간 본성과 번뇌를 은유한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이 일상을 흔들지만, 그럼에도 호수는 본래 고요하다는 인식이 시의 중심을



이룬다.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응시하는 대목이다.

김규성 시인은 그의 시에 대해 "농사를 천직으로 생활화한 서정적 리얼리즘의 진수"라고 평했다. 농촌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실존과 본질을 길어 올리는 방식이 그의 시를 지탱하고 있다는 평가다.

도시 중심의 언어와 감각이 지배하는 시단에서 오형록의 시는 자연과 이웃, 노동의 감각을 통해 서정시의 흐름을 이어간다.

한편 1962년 해남에서 태어난 오형록(사진) 시인은 2014년 계간 '열린시학'으로 등단했다.

시집 '붉은 심장의 웅아리', '오늘밤엔 달도 없습니다', '꼭지 파던 날', '희아리를 도려내듯이', '빛 하나가 내게로 왔다' 등을 펴냈다. 한국문인협회, 전남문화회, 해남문화회, 목포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 '시아문학'을 발간하며 비영리법인 '시아문학' 회장을 역임했다. 평화주제 문학작품상, 시사문단문학상(본상) 등을 수상했고, 202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명진 기자

▲밥 짓는 마음 시 짓는 하루=유송자 저자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시집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총 4부 100편이 담긴 이번 시집은 밥을 짓는 마음으로 시를 쓰는 저자의 파스한 온정이 담겨있다. 오늘 하루의 기쁨을 다듬고, 눈물 한 스푼과 웃음 한 줌을 넣어 마음의 밥상을 차린다는 저자는 삶이 힘들 때면 시를 쓴다고 이야기한다. 책에는 작가의 소소한 일상부터 나눔과 봉사의 이야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모습까지 다양한 면모가 드러나 있다.

/동양문학·1만원

▲이제 너를 놓쳐도 되겠습니까=조선의 저자



조선의 시인의 10번째 시집인 이 책은 성찰과 발견을 통해 시상을 섬세하게 불러온다. 지속적인 물음에 답하며 자신의 고독한 실존을 끊임없이 증명하려 한다. 총 4부 60여편이 실린 이번 시집에는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향수와 그 이면에 깔린 분노가 작품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박철영 문학평론가는 이 시집에 대해 "사물의 진정한 의미를 캐내려고 집중적으로 탐색하는 고투가 보인다"며 "대상과 밀착한 시적 사유가 무거운 듯 가볍지 않은 메타포를 이룬다"고 평했다. /시와사람사·1만2천원

▲얼굴들=이동원 저자



세계문학사 수상작가 이동원이 '선악(善惡)의 경계'에 오래 천착해 그려낸 장편소설이다. 돈과 명예에 눈이 먼 자,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자, 오직 자신의 쾌락에 굴복한 자... 작가는 선인의 가면을 쓴 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악인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작가는 다양한 인물들이 처한 현재와 과거를 교차 편집함으로써, 세상 모든 자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상태로 태어나 그 경계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탐욕과 이기심, 부정과 기만으로 가득한 현실 세계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만이 자신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 /리움·1만7천800원

▲별뿔별=정호승 글, 한요 그림



'반세기 동안 빚어낸 아름다운 동심의 언어.' 한국인이 사랑하는 서정시인 정호승의 두 번째 동시집이 출간됐다. 반세기 이상 슬픔과 기쁨, 아픔과 깨달음을 노래해온 저자의 동시 세계가 품 넓게 담겨 있다. 종로 광화문 같은 서울 한복판의 동틀녘부터 별이 떨어지는 경주 첨성대까지, 시공간을 누비는 시인의 여행은 다채롭다. 시인은 복잡한 문제와 날카로운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기에 오히려 어린이가 꽃과 나무, '봉어뿔'과 '짜장면'이 돼 세상과 더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창비·1만3천원

## 생태·인문학의 만남...자연의 숨결에 깃든 문장들

### 숲 연구가 황호림 시집 '숲에 가면 나도 시인' 출간



"과학의 언어로 담지 못한 풀잎의 떨림, 시(詩)로 적었습니다."

평생 숲을 연구하며 논문과 전문서적으로 자연을 기록해온 저명한 식물학자가 '이성'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감성'을 입었다.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겸임교수이자 동북아숲문화원장으로 활동 중인 숲 연구가 황호림(사진) 박사가 첫 번째 시집 '숲에 가면

나도 시인' (책나무출판사)을 출판했다.

그동안 '라운제나', '우리 동네 숲 돌보기', '숲을 듣다' 등 전문서와 에세이를 넘나들며 숲의 가치를 살펴본 황 박사는 이번 시집을 통해 연구가가 아닌 '나무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기록했다.

황 박사는 희귀식물인 '왕자귀나무' 연구로 국내외 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아온 숲 연구자다. 그러나 그는 숲을 과학적 분석의 대



상이 아니라 언어가 태어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며 펜을 잡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집은 단순한 자연 예찬에 그치지 않는다. 탄탄한 식물 분류학적 지식 위에 인문학적 통찰을 더해 독창적인 시선을 완성했다. '꽃쟁이는 사디스트', '숲으로 출근하는 남자' 등 유틸 있는 제목 속에 담긴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 '들꽃의 언어'

와 2부 '나무의 초상'에서는 복수초, 열레지, 히어리 등 우리 식물을 의인화해 그들의 생태적 특성을 문학적으로 풀어냈다. 이어지는 3부 '순환의 숲'과 4부 '추억의 숲길'에서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의 겸손함과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담히 그렸다.

황 박사는 "왕자귀나무의 잎맥과 노루귀의 솜털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생명의 무기는 지식이 아닌 '서로의 숨결을 나누는 일'에 있음을 알게 됐다"며 "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침묵이 전하는 미학을 통해 독자들이 삶의 에너지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유튜브 채널 '숲PRO TV'를 운영하며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황 박사의 이번 시집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다. /목포=정혜선 기자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